

구약논단

제15권 1호(통권 31집) 2009년 3월 31일

- 홍 성혁(서울신대) 이사야서 6장의 심판과 회복에 나타난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 137
- 본 연구는 사 6장이 이방까지도 통치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를 말하려는 기
원전 8세기의 이사야의 고유의 말임을 입증하는 논문이다. 이를 위해 사 6장을 문학·역
사적 분석하며, 여기에 반영된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를 살펴본다. 나아가 하나님의 우주
적 통치가 심판과 회복의 모티프를 토대로 전개되고 있음을 살펴본다.

이사야 6장의 심판과 회복에 나타난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

홍 성혁 | 서울신대

1. 여는 말

기원전 8세기의 예루살렘 이사야의 신탁에서 심판과 회복의 관계는 줄곧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상당수의 학자들은 이사야의 메시지는 원칙적으로 심판으로 채색되어 있기에, 회복의 전망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해왔다. 사 6장의 경우에도, 심판의 맥락 가운데 회복의 전망을 담고 있는 사 6장 13절 후반을 흔히 후대의 편집의 결과로 간주해왔다.

그러나 필자는 사 6장이 자리잡고 있는 문학적 맥락 및 6장 자체의 구조 분석에 근거하여 사 6장 전체의 통일성과 그 타당성을 분석하는 한편, 역사적 해석 방법과 대화하는 가운데 사 6장 13절 후반부가 이사야의 고유한 메시지에 속함을 말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사야가 심판 이후의 회복을 전망하는 이 부분을 그의 메시지 안에 포함시킨 것은 이사야 개인의 죄에 대한 심판과 정화를 통한 회복이 유다 백성 전체의 죄에 대한 심판과 정화를 통한 회복의 예표적 기능을 의식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이 심판과 회복의 구도는 야훼가 우주적 통치자라는 신학적 명제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7장 이후에 전개되는 아하스를 비롯한 사회 지도층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이방과의 동맹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표상이라는 점을 각인 시키면서, 이방마저 다스리시는 하나님

의 우주적 통치를 신뢰하도록 촉구하고자 했다는 점을 해명하고자 한다.

2. 사 6장의 문학적 특성과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

1) 사 6장의 문학적 맥락

사 6장은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모아놓은 사 13 - 23장과 구별되면서,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회복을 다루고 있는 사 1 - 12장의 중심 부분을 차지한다. 사 1 - 12장 안에서 사 6장의 기능은 무엇이며, 이를 통해 어떤 의미를 드러내는지 살펴보자. 이사야 전체의 서론이기도 한 사 1장은 예언자의 정치·종교적 사상을 토라에 대한 순종에 근거하여 말하고 있는 반면에, 사 12장은 야훼의 구원에 대한 감사 찬송 시를 담고 있어 독립된 단락의 종결임을 시사하고 있다. 사 12장의 구원에 대한 찬송 시는 유다에 대한 심판 선고가 예언자의 최종적인 선언이 아님과 아울러 희망을 제시하면서 끝을 맺는다. 사 13장(-23장)부터는 새로운 표제어(사 13: 1)와 함께 유다에 관한 심판/구원 메시지로부터 여러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신탁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단락의 시작을 고지하고 있다. 이 이방 심판 신탁은 이스라엘은 물론 이방에 대한 야훼의 주권을 확고하게 표명하려는 의도와 관계가 있다.

사 1 - 12장은 형식과 내용에 의해 사 1장, 2 - 5장, 6장 1절 - 9장 6절(한글 9: 7), 9장 7절(한글 9: 8) - 10장 4절, 10장 5절 - 12장으로 나눌 수 있다. 사 1장은 1장 1절의 표제어와 함께 정치·사회적 상황에 관한 다수 신탁의 모음집으로서 서론적 기능을 한다. 사 2 - 5장은 사 2장 1절에서 새로운 표제어와 함께 시작되는데, 유다 지배 계층의 탐욕과 오만 및 우상 숭배와 그 결과로 인한 야훼의 심판을 전쟁 이미지에 담아 묘사하고 있다. 사 6장 1절 - 9장 6(한 9: 7)절은 사 6장의 이사야의 사명 위임으로 시작하며, 주로 이야기 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부분은 사 6장과 사 8장의 1인칭 서술 형태로 인해 이사야의 자전적인 '회상록'으로 불린다. 7장 1절 - 8장 18절은 기원전 735-732년에 발생한 시리아-에브라임 전쟁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전쟁에 대한 반응으로서 아하스 왕이 추구한 외세와의 동맹 정책은 야훼에 대한 불신의 전형으로 그려진다. 사 8장 19절 - 9장 6절은 사 8장 18절의 1인칭 형태와는 달리, 사 8장 19절에서 주어가 3인칭으로 바뀜으

로 단락 구분의 가능성을 제기한다. 그러나 יָבִי(베키/그리고 ~할 때)에 의해 구문론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 8장 16절에 등장한 '토라'에 대한 언급이 사 8장 20절에도 등장하기 때문에, 앞부분과 연결하여 한 묶음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런 관점에서 이 단락의 내용은 사 8장 18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야훼께서 예언자에게 준 징조의 의미'와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징조는 이스라엘에 대한 야훼의 구원과 그 구원이 아하스의 계승자인 다윗 가문의 인물에 의해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과 관계가 있다. 사 9장 7절(한글 9: 8) - 10장 4절은 구문의 측면에서 앞의 이사야의 '회상록'과 연속성이 없으며,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회상록'의 유다 구원과 상반되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본 단락 내의 동일한 후렴 구절, "그렇지라도 야훼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가 사 9장 12절, 17절, 21절 및 사 10장 4절에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통일성을 지닌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야훼께로 돌이키기를 거부하고 정의를 파괴하는 행위를 벌인 것에 대한 심판을 묘사함으로써, 유다의 지도자들이 선택해야 할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자 한다. 끝으로, 사 10장 5절 - 12장 6절은 도입구 יְיָ(호이/재앙이로다)로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예고편이 앗시리아로 확대되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한 때 야훼의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 역할을 했던 앗시리아가 도를 넘어선 행동(사 10: 12-14)으로 인해 야훼의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말하는 가운데, 이방에 대한 야훼의 주권을 부각시킨다. 앗시리아의 교만과 대조적으로 야훼의 주권을 존중하는 겸손한 다윗 계 메시야의 등장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알리면서 야훼의 구원에 대한 짧은 감사 찬송 시(사 12: 1-6)로 마감한다.

이러한 거시적 맥락 가운데 분석 대상인 사 6장은 어떤 기능을 할까? 우선 사 6장의 앞부분인 사 2 - 5장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지배 계층의 탐욕과 오만 및 우상 숭배 등의 사회·종교적인 부조리에 대한 심판이 이방을 도구로 한 전쟁의 형태(5: 26-30)로 나타날 것임을 말한다. 사 7장 이하에서는 시리아-에브라임 전쟁에 대한 대처 문제와 여기서 파생되는 앗시리아와의 동맹 등 정치적인 문제에 주로 초점을 맞추면서, 야훼의 우주적 통치에 대한 신뢰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렇게 본

다면, 사 6장은 사회적인 부조리에 대한 비판의 절정으로서의 심판의 맥락에 위치하고 있는 동시에, 6장 이후에 전개되는 이방을 다스리는 야훼의 주권에 대한 유다 지도층의 신뢰를 촉구하는 정치적인 관점을 여는 방향키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스라엘 및 유다의 사회적 부정에 대한 심판의 주체가 야훼임을 밝히는 동시에 향후 전개되는 이방과의 정치적인 동맹이 야기할 야훼의 우주적 통치에 대한 불신임을 미연에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사 6장이 전후 맥락의 연결고리 기능을 하면서 야훼의 우주적 통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는 리버레이치(L. J. Liebreich)¹⁾의 관찰에 의해 더욱 잘 뒷받침된다. 특히, 리버레이치는 신에 대한 묘사에 주목하였다. 사 1 - 5장의 서두와 말미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사 1: 4; 5: 24)가 등장하면서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사 6장에서는 하나님을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한 거룩하신 분으로 묘사한다(사 6: 3). 다시 말하면, 사 6장 이전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특수한 영역과 관련을 맺고 있는 하나님으로 묘사된다면, 사 6장 이후에는 온 우주의 하나님으로 다스림의 영역이 확장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는 야훼가 이방에 대한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앗시리아와의 동맹을 염두에 두고 있던 아하스 왕으로 하여금 야훼를 신뢰하도록 촉구하는 의미를 드러낸다. 다른 한편으로, 사 6장에서는 웃시야라는 인간 왕의 죽음과 더불어 야훼 하나님이 이사야서에서 처음으로 '왕'으로 묘사된다(사 6: 5). 웃시야라는 인간 왕의 퇴진과는 대조적으로 야훼가 왕으로서 등장하고 있음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7 - 8장에 들어가면 시리아-에브라임 동맹의 주체들인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라는 두 인간 왕들이 유다에 새로운 인간 왕을 세우려는 음모를 꾸미는 사실(사 7: 7)과 이들의 음모를 좌절시킬 보다 강력한 앗시리아 왕의 출현을 보도하고 있다(사 7: 17-8: 8). 어떤 면에서 이는 사 6장에 있는 야훼의 신적인 왕으로서의 등극에 대한 의미를 약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앗시리아 왕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1) L. J. Liebreich, "The Position of Chapter Six in the Book of Isaiah," *Hebrew Union College Annual* 25 (1994), 38쪽.

의 대상으로 전략하게 된다(사 10: 5-15)는 점에서 보면, 신적인 왕인 야훼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와 그에 대한 신뢰의 중요성을 사 1 - 5장과 7 - 12장의 분수령에 위치한 사 6장을 통해 강조하려는 의도를 더욱 강화시켜 준다고 볼 수 있다.

2) 사 6장의 문학적 구조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

우리는 앞에서 사 6장이 위치한 전후 맥락을 통해 사 6장이 사회·정치적 측면을 포괄하는 우주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낸다는 사실을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사 6장 자체의 문학적 구조가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를 어떻게 드러내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그러나 구조에 대한 분석에 앞서 사 6장 전체가 통일성을 갖추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통일성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12-13절인데, 다수의 학자들은 12-13절을 이사야의 고유의 말로 보기보다는 후대의 삽입으로 간주한다. 빌트버그(H. Wildberger)는 문체와 문맥을 근거로 하여, 12절이 이사야 자신의 출처가 아니며 후대에 편집되었다고 본다. 문체의 경우, 11절에서는 야훼가 직접 말하는 데 반하여, 12절에서는 야훼가 화자일 가능성이 짙은 맥락에서 3인칭으로 간접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맥의 경우, 11절에서는 성읍이 황폐하여 남은 자가 없다고 말하는 데 반하여, 12절에서는 사람들을 멀리 보내겠다고 말함으로써 남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모순적인 표현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빌트버그는 13절의 희망적 색채를 12절보다 더 늦은 시기에 두 차례에 걸쳐 추가 편집된 것으로 본다.²⁾ 블렌킨소프(J. Blenkinsopp)는 12절의 야훼에 대한 3인칭 언급을 후대의 첨가의 흔적으로 간주하면서,³⁾ 기원전 6세기의 바빌론 포로기에 편집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면서도 701년 산헤립의 침공 결과로 파생되는 황폐화된 장면과 어울릴 수 있음도 배제하지 않는다. 또한 13절의 '거룩한 씨'에 대한 언급은 포로기 이후에 유배지의 원주민과 구별된 정체성을 유지하고 싶어했던 유대인 포로 공동체의 희망과 연관된 것으로 보고자 한다.⁴⁾ 차일즈(B. S. Childs)도 윌리엄슨(H.

2) H. Wildberger, *Isaiah 1-12: A Commentary*, trans. T. H. Trapp,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1), 258쪽.

3) J. Blenkinsopp, *Isaiah 1-39: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nchor Bible), (New York: Doubleday, 2000), 223쪽.

G. M. Williamson)의 사 9장 2절에 있는 ‘거룩한 씨’에 대한 분석에 근거하여, 13절이 포로기 이후의 편집 결과라고 주장한다.⁵⁾

위의 견해를 종합할 때, 12-13절의 후대 편집 주장에 관하여 두 가지 사실이 크게 부각된다. 하나는 11b절에서부터 야훼가 화자인 맥락인데, 12절에서 야훼가 3인칭으로 언급된다는 사실이 부자연스럽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13b절의 ‘거룩한 씨’가 암시하는 희망적인 색채가 1-11절의 심판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으며, 포로기 혹은 다른 시기의 편집의 결과라는 점이다. 전자에 대해서는, 12절이 11a절에서 제기된 이사야의 질문인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에 대한 야훼의 답변이 개시되는 11b절의 연장선에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1b절에서 야훼의 답변은 “그가 말했다”로 시작한다. 여기서 야훼가 3인칭(‘그’)으로 표기되고 있는 것은 야훼의 답변이 ‘예언자의 보도 형식’으로 전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12절의 ‘야훼’라는 3인칭 표기는 예언자의 질문에 답하는 야훼의 말을 예언자 이사야가 받아서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11절과 12절의 어휘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면서 심판 모티프를 드러내고 있다. ‘사람’을 지칭하는 אָדָם(아담)이 두 구절에 동시에 나타나며 ‘땅’을 지칭하는 유사 어휘인 אֲדָמָה(아다마)와 אֶרֶץ(에레츠)가 나타난다. 이렇게 볼 때, 11절과 12절을 완전히 이질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후자에 대해서는, 위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희망적인 색채를 담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13절이 기원전 8세기의 예루살렘 이사야의 고유한 말이 될 수 없는가 하는 문제이다. 사실, MT(맛소라 본문)에 있는 13절의 마지막 부분인 “그 그루터기는 거룩의 씨앗이다”는 칠십인역에서 생략되어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더 짧은 본문인 칠십인역이 원본에 가깝다는 말인가? 그보다는 부데(K. Budde)⁶⁾가 입증했듯이, 칠십인역의 생략이 호모이오텔류톤(homoioteleuton)⁷⁾에 의해서 발생했을 가

4) 윗글, 226쪽.

5) B. S. Childs, *Isaiah* (OT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1), 58쪽.

6) K. Budde, “Über die Schranken, die Jesajas prophetischer Botschaft Zu setzen sind,” *Zeitschrift für die alttestamentliche Wissenschaft* 41 (1923), 154-203쪽, 특히 166쪽 이하를 참고하라. 또한 본문비평에 근거하여 MT가 원본임을 설득력 있게 증명한 엥넬(I. Engnell, *The Call of Isaiah*, [Uppsala/Leipzig: Lundequistska, 1949], 13-15쪽)을 참고하라.

7) 본문비평을 위한 용어로서 어떤 구절의 근접 위치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단어 혹은 철자들이 반

능성이 크다. 더구나, 다른 헬라이어 역본들인 심마쿠스, 데오도치온, 아퀼라 역본들은 이 부분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원래의 본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본문 자체의 진정성에 대한 증거와 아울러, 내용상으로 심판 가운데 희망적인 색채를 담고 있는 13절의 마지막 부분은 어떤가? 위에서 살펴본 것같이, 학자들은 기원전 8세기의 예언자 이사야는 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회망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 부분을 포로기 혹은 포로기 이후에 첨가된 것으로 본다. 과연 그들이 예언자의 메시지를 심판/회복 이분법 구도에 의하여 나누면서 본문의 통일성을 부정하는 것이 정당한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예언자는 회복의 메시지를 전할 수 없는가? 이에 대한 답변은 3장에서 별도로 다룰 것이므로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다. 다만 필자는 여기서 기원전 8세기의 예언자 이사야가 심판과 아울러 회복의 가능성을 전망하는 메시지를 전했음을 밝혀둔다. 회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점은 별도로 밝혀져야 하겠지만, 13절의 마지막 부분은 회복의 차원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이런 전제는 사 6장에 대한 문학적 구조 분석에 의해 한층 더 잘 뒷받침이 된다. 본문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단락은 이사야가 성전에서 야훼의 임재를 경험한 사건이 발생했던 시대적 배경을 언급하고 있는 1a α 이다.⁸⁾ 둘째 단락은 야훼와 야훼의 수종을 드는 스랍들이 우주적인 야훼의 거룩을 찬양하고 이사야의 죄를 씻어주는 행위를 목격한 환상에 관하여 1인칭으로 보도하는 1a β -7절이며,⁹⁾ 셋째 단락은 야훼와 이사야가 질문과 답변을 번갈아 주고받는 가운데, 이사야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과 그 사명의 궁극적 지향점에 관한 환청(幻聽) 장면을 1인칭으로 보도하는 8-13절이다. 둘째 단락은 כִּי־יִשְׁמַע (바에르에/그리고

복될 때 그 구절의 마지막 부분(단어/절자)이 실수로 생략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8) 이 연대 표시는 단순히 이사야가 천상의 어전회의의 환상을 경험한 시기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야훼의 주도권이 발의된 시기를 말하고자 하는 신학적인 도입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보라. R. Knierim, "The Vocation of Isaiah," *Vetus Testamentum* 18 (1968), 49-50쪽.

9) 필자는 사 6장의 양식은 이사야가 사역 초기에 받은 소명에 관한 기사라기보다는 천상 어전회의에서 하달된 사역의 방향 전환에 대한 환상 보도로 본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보라. 김재구,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6장의 신학적인 기능," 『구약논단』 제25집(2007), 70-88. 기타 장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보라. M. A. Sweeney, *Isaiah 1-39 with an Introduction to Prophetic Literature* (FOTL XVI), (Grand Rapids: W. B. Eerdmans, 1996), 134-36쪽.

나는 보았다)로 시작하는데, 야훼가 왕으로서 성전 보좌에 좌정하신 모습을 보도하는 1aβ-1b, 야훼의 수종을 드는 스랍들이 야훼의 우주적인 거룩을 찬양하는 2-4절 및 자신의 죄를 탄식하는 이사야에 대해 스랍들이 정화 의식으로 죄를 제거하는 행위를 보도하는 5-7절로 나눌 수 있다. 셋째 단락은 **וַיִּשְׁמַע**(바에쉬마/그리고 나는 들었다)로 시작하는데, 유다 백성 전체에 대한 야훼의 심판을 전달해야 하는 사명과 관련한 야훼의 질문 제기과 예언자의 답변 및 야훼의 실행 명령을 보도하는 8-10절과, 역으로 심판의 지속 기간에 대한 예언자의 질문과 야훼의 답변 및 심판의 궁극적 지향점(‘거룩한 씨앗’)에 대한 야훼의 부연 설명을 보도하는 11-13절로 나눌 수 있다. 이를 구조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 I. 배경: 웃시아의 죽음의 때(1aα절)
- II. 환상 보도: 야훼의 우주적 통치(1aβ -7절)
 - A. 성전 보좌에 좌정한 야훼(1aβ-1b절)
 - B. 스랍들의 야훼의 우주적 거룩 찬양(2-4절)
 - C. 이사야의 죄 정화(5-7절)
 - 1. 이사야의 죄에 대한 탄식(5절)
 - 2. 스랍의 반응: 죄 정화(6-7절)
- III. 환청 보도: 야훼의 심판 사명 위임 주도(8-13절)
 - A. 야훼의 질문과 예언자의 답변(8절)
 - 1. 야훼의 질문: “누구를 보낼까?”(8a절)
 - 2. 예언자의 답변: “저를 보내소서”(8b절)
 - B. 야훼의 심판 사명 위임 명령(9-10절)
 - C. 예언자의 질문과 야훼의 답변(11-13절)
 - 1. 예언자의 질문: “얼마나 오랫동안?”(11a절)
 - 2. 야훼의 답변: “멸망 때까지”(11b절)
 - 3. 야훼의 역설적 설명: 심판의 궁극적 목표는 회복(12-13절)

이 구조가 부각시키고 있는 바는, 웃시아라는 인간 왕의 죽음을 배경으로 삼으면서 실질적인 왕으로서 야훼의 우주적 통치를 부각시키려는데 있다. 이는 앞으로 전개되는 사건이 웃시아의 계승자인 다윗 계 왕이 아닌 야훼의 주도에 의해 이루어질 것임을 의미한다(사 14: 28-32).¹⁰⁾ 야훼가 성전의 보좌에 좌정해 있는 가운데 야훼의 수종을 드는 스랍들이

10) 크너림, 윗글, 49쪽.

세 차례에 걸쳐 거룩의 찬가를 부르면서 야훼의 거룩성에 대한 우주적 차원을 강조한다. 아울러, 야훼의 우주적 거룩에 상반되는 개인 이사야의 부정을 제거하는 주도권이 스랍을 매개로 한 야훼께 있음을 부각시킨다.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 전체¹¹⁾의 죄를 심판하는 문제를 사명 형식의 질문으로 제기하는 이는 야훼이며, 마지막 소 단락에서 심판의 지속 기간에 대한 예언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유다의 죄에 대한 심판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회복에 대한 부연 설명도 야훼가 함으로써 심판과 회복의 주도권이 야훼께 있음을 다시금 분명히 한다. 이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시사하는 한편, 마지막에 심판으로 인한 소멸의 위기 속에 역설적으로 야훼가 기사 희생의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회복이 백성의 회개가 아닌 야훼의 주도적 은혜에 의한 것임을 나타낸다. 이는 사 7장 이하에서 시리아-에브라임 전쟁의 위기와 앗시리아의 서진 속에서 앗시리아와의 동맹에 운명을 걸고자 하는 아하스와 그 추종 세력에 대해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를 인정하고 신뢰하라는 경고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3. 심판과 회복의 정황과 야훼의 우주적 통치

우리는 위에서 문학적 맥락과 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사 6장이 우주적인 왕으로서의 야훼의 통치를 심판과 회복의 모티프에 토대를 두고 전개시키고 있음을 알아보았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심판과 회복의 모티프에 토대를 두고 거룩한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를 말하고자 하는 정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의 관련 부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먼저 심판과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를 말하고자 하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유다 백성의 하나님에 대한 거부에서 파생된다. 감미(J. G. Gammie)는 거룩에 대한 예언자의 이해에 대하여 설명하는 가운데, 이사야서에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는 호칭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맥락에서 종종 등장하고 있음을 주목하였다(예, 사 1: 4; 5: 18-19, 24; 30: 8-14).¹²⁾ 이 호칭이 등장하는 구절들의 맥락이 배은망

11) 여기서 심판의 대상자로서 포괄적으로 유다 백성이라 지칭했지만, 보다 구체적으로는 유다의 지도층을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 9절의 “이 백성”에 관한 아래 설명을 참고하라.

12) J. G. Gammie, *Holiness in Israel* (Overtures to Biblical Theolog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89), 75쪽.

덕, 사회적 불의, 교만, 불순종 등을 문제삼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 대한 거부는 대부분 야훼의 말씀에 반(反)하는 죄와 결부되어 있다. 그러나 거룩하신 야훼는 죄와 어울릴 수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한 씻음을 요구한다(사 1: 15-16). 거룩과 씻음은 불가분의 관계이다.¹³⁾ 거룩은 단순히 정결한 상태를 나타내는 데 머물지 않고 정화를 위한 야훼의 적극적인 조치를 수반하는 의지의 표현을 포함한다. 그래서 야훼의 거룩은 부정에 대하여 심판의 형태로 씻음의 조치를 유발시킨다.

야훼의 거룩에 의해 초래되는 심판은 야훼의 거룩한 임재 앞에 노출된 이사야의 탄식(5절,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에 의하여 보다 확연해진다. 탄식의 원인은 예언자 자신과 백성의 입술의 부정에 있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빌트버그는 이사야 자신의 입술의 부정에 대한 언급은 자신의 부정이라기보다는 백성의 부정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뜻이라고 주장한다.¹⁴⁾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에 노출된 인간이 상대적으로 자신이 부정하지 않다고 반응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그러므로 이사야 자신의 부정은 물론, 백성의 부정 및 이에 대한 예언자 자신의 책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예언자도 나머지 백성과 다를 바 없으므로, 예언자로서의 사역을 수행하기에 적합치 않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정황 속에서 야훼의 수종을 드는 스랍 중 하나가 이사야에게로 날아와 제단에서 취한 숯불을 들고 그의 입술에 갖다 대며, 그 결과로 이사야의 모든 죄와 허물이 제거된다(6-7절). 여기서 우리는 이사야의 죄를 처리하는 두 가지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죄에 대한 심판이 불의 이미지로 실행된다는 사실과, 다른 하나는 심판의 결과가 죄의 제거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불의 이미지를 담고 있는 것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rišpâ)뿐만 아니라, 스랍(šārāp)이란 말도 ‘불과 연관된 천상의 존재’ 혹은 ‘불 뱀’을 말한다. 이 단어들은 이사야서 안에서 스랍과 동일한 어근을 가진 사랍(šārap/타다, 사 1: 7)과 짜랍(šārap/정제하다, 사 1: 25)과 동음이형에 의한 언어유희를 통해 정화의 의미를 뚜렷이 드러내 준다.¹⁵⁾ 이사야의 죄에 대한 심판이 보복의

13) 윗글, 7-8쪽.

14) 빌트버그, 윗글, 268쪽.

15) P. D. Miscall, *Isaiah*, (Sheffield: JSOT Press, 1993), 34쪽.

차원에서 불을 통해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라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화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물론 정화 과정에서 이사야 편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스랍을 통한 야훼의 주도적 개입(은혜)으로 소멸이 아닌 정화의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이사야 개인의 죄에 대한 처리는 정화 심판의 방식으로 처리된 반면에, 함께 지적한 백성의 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사야의 죄를 정화하기까지 침묵하던 야훼께서 갑자기 목소리를 내신다. 이사야가 속죄를 통해 야훼의 사역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일 것이다. "...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 (8절). 사명 위임 형식의 질문으로 시작해서 이사야의 답변(8절)과 야훼의 명령(9-10절), 이사야의 질문과 야훼의 답변(11-13절)이 교차대칭 형태로 나타난다. 한 가운데 위치한 야훼의 사역 위임 명령의 초점은 백성의 총체적인 완악함(듣고 보고 깨닫고 아는 기능 마비)을 유발시키는 데 있다. 이는 백성들 편에서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암시한다. 16) 왜 야훼는 백성의 완악함을 해소시키려 하지 않고 심화시키려는 것일까? 17) 그것은 완악함의 해소보다는 심화가 백성의 미래를 위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거룩한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 없으며, 그런 의미에서 백성의 완악함을 심화시키는 것은 심판을 불가피하게 만든다. 9-10절 명령의 의도는 이사야의 사역을 통해 백성에게 심판의 불가피성을 전달하려는 데 있다. 18) 심판의 불가피성은 이미 사 1 - 5장에 묘사된 대로 유다의 사회적 불의와 불신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완악한 지

16) 김 회권은 10절의 의미에 대하여 이렇게 말한다: "... 가장 역설적인 방법으로 회개의 위대한 위력을 역설하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유다 백성들의 회개를 지극히 미세한 가능성으로 남겨둔다." 김 회권, "이사야의 하나님 결단의 신학: 이사야 6장에 대한 주석적 연구," 「구약논단」 제 25집(2007), 25쪽. 그러나 10절은 심판의 확실성과 함께 백성들의 회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개입에 의한 회복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전개될 것임을 말하려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7) 빌트버그는 완악해지는 과정이 백성 혹은 야훼 중의 일방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백성의 완악과 야훼의 개입이 변증법적 관계 속에서 발전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빌트버그, *윗글*, 272-73쪽. 이런 관점은 출애굽기에서 바로의 완악함이 심화되는 과정에 의해서 뒷받침된다.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재앙까지(출 7: 22; 8: 15, 19, 32; 9: 7), 그리고 일곱 번째 재앙(9: 35)에서는 바로 스스로가 완악해지나, 여섯, 여덟, 아홉 번째 재앙(9: 12, 10: 20, 27)에서는 야훼가 바로의 완악함의 발전에 개입한다.

18) Y. Gitay, *Isaiah and His Audience: The Structure and Meaning of Isaiah 1-12*, (Assen, Netherland: Van Gorcum, 1991), 121쪽.

경에 이르렀기에 예견된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 당혹스러운 명령이 본질적으로 겨냥하고 있는 대상은 누구일까? 이들의 정체에 대한 암시는 심판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는 9절에 들어 있다. 이들은 '이 백성'으로 지칭되는 이사야의 심판 메시지의 청취자들이다. 허셀(A. J. Heschel)은 '이 백성'이 북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으로 본다.¹⁹⁾ 왜냐하면 9-10절의 난감한 명령이 야훼에 대한 영적 둔감성이 상대적으로 더 깊었던 북 이스라엘을 겨냥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차일즈와 와츠는 유다와 이스라엘 양쪽 모두를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다.²⁰⁾ 반면에, 클레멘츠는 유다와 연관시킨다.²¹⁾ 이사야 예언의 일차적 목적이 유다의 운명과 관계된 것임을 전제할 때, '이 백성'은 유다를 지칭할 공산이 더 크다. 그렇다고 이 표현이 단순히 유다 백성 전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헤이즈(J. H. Hayes)와 어바인(S. A. Irvine)은 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데, '이 백성'은 반(反) 다윗 가문 정서를 가진 자들로서 반(反) 앗시리아 연합 전선인 시리아-에브라임 동맹을 지지했던 무리를 가리킨다고 주장한다(사 8: 6, 12).²²⁾ 이는 대외 정책을 놓고 다윗 가문과 대립하던 파벌이 유다 내에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원전 8세기초에 북 이스라엘의 요아스가 유다의 아마샤를 패배시킨 이래로, 유다는 이스라엘의 봉신 국가가 아니었지만 종속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유다 내에 이스라엘과의 정책 공조를 지지하는 파벌이 존재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사 7: 5-6). 이들과는 달리, 아하스 왕은 친 앗시리아 정책을 취했다. 외형상 시리아-에브라임 동맹군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한 교육지책이기는 했으나(왕하 16: 7), 앗시리아를 향한 아하스의 밀착은 도를 넘어, 야훼에 대한 무관심과 불신마저 드러내 보일 정도였다. 아하스는 국가 종교로서의 야훼주의를 버리고 앗시리아의 제의를 자청하여 도입했다(왕하 16: 10-18). 이는 앗시리아의 서진과 시리아-에브라임 동맹이 결성될 무렵에 유다 내에 아하스를 정점으로 한 친 앗시리아 파벌이 이미 형성

19) A. J. Heschel, *The Prophets: An Introduction*, (New York: Harper & Row, 1969), 90쪽.

20) Childs, *Isaiah*, 57쪽; J. D. W. Watts, *Isaiah 1-33* (WBC 24), revised, (Waco: Word Books, 1985), 108쪽.

21) R. E. Clements, *Isaiah 1-39* (NCBC), (Grand Rapids: W. B. Eerdmans, 1980), 76쪽.

22) J. H. Hayes/S. A. Irvine, *Isaiah: The Eighth-Century Prophet*, (Nashville: Abingdon Press, 1987), 110쪽.

되고 있었음을 시사해 준다.

반 앓시리아든 친 앓시리아든, “이 백성”은 모두 권력의 정점 주위를 맴 돌던 사회 지도층 인사들로 보인다. 이들은 모두 야훼보다 외국과의 군사적 동맹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입지를 강화시켜 줄 것으로 믿었다. 이들은 각종 정책을 통하여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기에 몰두하던 자들이었다. 이사야가 비난했던 이들의 공격적인 축재 행태는 여섯 재앙 신탁의 하나인 5장 8-10절에 단적으로 잘 드러난다. 이 구절은 사회 지도층이 농민들의 토지를 병합할 뿐만 아니라,²³⁾ 환금작물인 포도와 곡물 재배를 통하여 부를 축적하려는 시도가 실패로 돌아갈 것임을 선포한다. 사실, 이들은 토지 병합의 결과로 수중에 넣은 땅에 주요 환금작물(포도주, 올리브 기름, 밀)을 집중 재배하여 국제 교역을 활성화시키는 일환으로 지역 특성화 정책을 압박하기도 하였다.²⁴⁾ 이 환금성이 높은 품목들을 수출하여 자신들의 사치 물품과 군사 물자 및 기념 건조물에 소요되는 물자를 사들이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정책은 예언자들의 눈에 이방의 것으로 간주되었다.²⁵⁾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구절의 재앙 모티프와 어휘들이 사 6장 11-13절의 심판 모티프 및 어휘들과 매우 유사하다는 데 있다. ‘거주자가 남아 있지 않다’는 뜻의 $\text{כְּשֵׁן יִשְׁבֹּעַ}$ (메엔 요세브), ‘폐허’를 의미하는 동일 어근(שָׁב)의 파생어 הָרָשָׁה (삼마)와 הָרָשָׁה (세마마), 그리고 ‘1/10이 남는다’는 표현²⁶⁾ 등이다. 이는 사 6장 9-13절이 5장 8-10절과 마찬가지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회 정의를 거스르고 야훼보다 이방과의 동맹이나 이방의 정책을 선호했던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심판과 연관됨을 강하게 시사한다.²⁷⁾ 야훼의 우

23) 율글, 103쪽.

24) 기원전 8세기의 이스라엘의 사회 지도층의 토지 병합을 포함하는 집약농업 정책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라. 마빈 L 체이니, 「농경사회 시각으로 바라본 성서 이스라엘: 구약성서의 종교와 사회의 역사, 문학 해석」, 우택주 외 6명 옮김, (서울: 한울출판사, 2007), 특히, 171-91쪽.

25) Seong-Hyuk Hong, *The Metaphor of Illness and Healing in Hosea and Its Significance in the Socio-Economic Context of Eighth-Century Israel and Judah* (SBL 95), (New York: Peter Lang, 2006), 108-28쪽.

26) 6: 13절에서는 남은 1/10마저도 파괴될 것이라고 말한다.

27) 사 5장에 나타난 여섯 재앙신탁 중의 하나인 사 5: 8-10절이 소위 “포도원의 노래”(사 5: 1-7)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재앙의 대상이 공통된다는 점에서 의도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포도원의 노래”의 청자는 사회 지도층 인사(특히, 3절과 7절)라는 것이 이 노래의 양식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밝혀진 바 있다. 재판 직무 비유(judicial parable)로 지칭되는 이 양식의 “포도원의 노

주적인 기록 앞에 노출된 이들의 부정은 심판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들에 대한 심판은 이들이 그토록 의지하던 이방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백성 전체(특히, 사회 지도층)에 대한 심판은 죄에 대한 보복 혹은 징벌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혹은 정화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이에 대한 답변은 이사야 개인의 죄에 대한 처리 방식(5-7절)에서 엿볼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사 6장의 구조에서 보았듯이, 이사야 개인의 죄와 죄에 대한 불의 정화는 백성 전체의 죄와 전쟁을 통한 죄의 정화와 상응한다. 이사야의 죄에 대한 심판의 특징인 정화는 백성의 죄에 대한 정화의 예표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²⁸⁾ 야훼의 기록에 노출된 이사야의 죄가 정화의 방식으로 처리되어 새 생명이 된 것처럼, 백성의 죄 또한 정화의 방식으로 처리되어 새로운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할 것이다. 심판이 불가피한 것이긴 하지만, 심판을 통해 불순물이 제거되고 정화되어 새 생명 공동체가 가능케 된다(사 1:21-26). 이런 점에서 심판은 단순히 새 생명에 선행하는 것이 아닌, 새 생명의 필수적인 토대라 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9-10절의 당혹스러운 야훼의 명령 목표도 정화 심판을 통과한 새 생명 공동체를 잉태하는 데 있었다. 이 구절과 관련하여 에만스(C. A. Evans)는 심판의 불가피성을 알림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신실한 '남은 자'²⁹⁾를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의도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³⁰⁾ 즉 백성의 완악함을 유발시키고자 하는 하나님 명령의 의도가 결국 정화 심판을 통해 미래 회복의 토대가 되는 신실한 '남은 자'를 배태하는 데 있었다는 말이다. 이는 11-13절의 내용에 의하여 잘 입증된다. 심판의 기간을 묻는 이사야의 질문에 야훼는 성읍이 파괴되고 땅이 황폐화될 뿐만 아니라, 거주민이 멸절될 때까지 지속될 것

래"와의 상관성에 대한 논의는 다음을 보라. Gale A. Yee, "A Form-Critical Study of Isaiah 5:1-7 as a Song and a Juridical Parable," *Catholic Biblical Quarterly* 43 (1981), 30-40쪽; John T. Willis, "The Genre of Isaiah 5:1-7," *JBL* 96 (1977), 337-62쪽.

28) G. F. Hasel, *The Remnant: The History and Theology of the Remnant Idea from Genesis to Isaiah*, (Berrien Springs: Andrews University Press, 1972), 249쪽.

29) 하젤은 회복을 의미하는 이 '남은 자' 사상이 예루살렘 이사야의 고유한 사상임을 주장한다. 뒷 글, 216-348쪽을 보라.

30) C. A. Evans, *To See and Not Perceive: Isaiah 6:9-10 in Early Jewish and Christian Interpretation*,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89), 17-52쪽.

임을 말한다. 그리고 다수의 백성이 포로로 사로잡혀 갈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사야 개인의 죄를 정화하는 수단으로서의 불의 이미지가 백성 전체의 죄를 정화하는 수단으로서의 전쟁의 이미지와 상응됨을 확인할 수 있다. 알스트룀(G. W. Ahlström)은 13절에서 정화의 의미로서의 불의 이미지와 전쟁의 이미지를 통찰력 있게 결부시킨다. **רָפָא**(레바에르/ 불태우기 위하여)의 이미지가 토질 회복을 위해 밭을 불태우는 농경문화의 관행과 관련이 있으며, 이 이미지가 전쟁과 잘 어울린다는 것이다. 불에 탄 밭에 의해 토질이 회복되고 난 뒤 보다 나은 수확을 거둘 수 있듯이, 전쟁으로 인한 멸망이 백성의 구원과 나라의 회복의 거름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³¹⁾

앞에서 우리는 야훼의 거룩에 노출된 유다의 죄에 대한 심판과 이 심판이 궁극적으로 정화를 통해 회복을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쟁을 매개로 한 야훼의 거룩이 가지고 있는 영향이 유다를 넘어 우주적인 차원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것은 이방이 유다를 심판하는 야훼의 도구가 됨으로써 이루어지게 된다. 사 1 - 5장에서 목격되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는 야훼의 호칭에서 하나님의 거룩이 이스라엘(유다 포함)이란 특수한 영역과 관련을 맺음과 아울러 이스라엘의 야훼에 대한 불신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제 이방의 침입에 의한 전쟁의 형태로 전개되는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의 영역을 벗어난 하나님의 거룩이 가지고 있는 우주적인 영향력과 그것에 대한 신뢰의 중요성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미 사 5장 8절 이하의 재앙 신탁 다음에 오는 사 5장 24-31절에서 이방 군대의 침공을 통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웃시야 사후, 그리고 사 7장에서 전개될 아하스에 대한 이사야의 경고 사이에 벌어진 시리아-에브라임 전쟁(기원전 735-732년)일 수 있다. 그러나 앗시리아의 디글랏빌레셀(기원전 745-727년)의 서쪽 정벌이 이미 기원전 743년에 개시되었고, 기원전 734년에 2차 정벌을 통해 시리아, 다마스쿠스가 무너졌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시시각각 유다의 목을 조여오는 앗시리아의 침략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일 수도 있다. 특히, 사 7 - 8장에서 이사야가 아하스의 앗시리

31) G. W. Ahlström, "Isaiah 6:13," *Journal of Semitic Studies* 19 (1974), 170쪽. 그는 **רָפָא**(베살레케트[나무]벨 때에)의 어근인 **רָפָא**(던지다)도 침략군에 의해 야기된 파괴의 일면으로 해석한다.

아와의 동맹 정책을 경고하는 것을 감안하면 후자일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그러나 앓시리아의 침략이라는 방식을 통해 백성에 대한 심판의 결과가 징벌 혹은 보복의 차원에서 멸망으로 종결된다면, 야훼의 우주적 통치를 입증할 길이 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야훼가 앓시리아 왕을 후원하는 신에게 패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이고(cf. 사 37: 10-13), 야훼는 이스라엘에 국한된 초라하고 무능한 신으로 전락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앓시리아의 왕들은 그들의 신인 '앗수르'의 이름으로 전쟁에 나갔으며, 전쟁의 승리를 이 신에게 돌렸다.³²⁾ 또한 그들은 승리자로서 피 정복민에게 '자신들의 신(神)의 굴레'를 지우기도 했다.³³⁾ 이런 사실에 대한 논박의 일환으로 이사야는 앓시리아가 야훼의 심판을 위한 도구적 역할에 불과하며(7: 17-20), 결국 앓시리아는 야훼의 심판을 받을 것이고(10: 12), 유다 백성 중에 남은 자가 있을 것(10: 20-23)이라는 사실을 빼놓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이사야는 6장에서 거룩한 하나님이 백성의 죄에 대하여 전쟁이라는 방식에 의거한 정화 심판을 통하여 이방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회복의 가능성에 주도적인 개입을 하실 것이라고 봄으로써 우주적 통치자로서의 야훼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주의 통치자인 야훼를 잊고 앓시리아와의 동맹에 운명을 걸고자 하는 아하스의 시도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동시에 보려주려 하고 있는 것이다.

4. 맺는 말

우리는 사 6장에서 문학·역사적 분석 방법을 통하여 예언자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목도한 거룩의 우주적 차원을 거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를 말하려 했으며, 이런 의도가 유다 백성(사회 지도층)에 대한 심판과 정화를 통한 회복 속에 담겨 있음을 논증하였다. 심판과 회복의 구도를 입증하기 위하여, 사 6장이 거시적 맥락 속에서 앞 단락(사 1-5장)과 뒤 단락(7-12장)의 교량 역할을 함을 말하였다. 즉 사 6장이

32) H. Ringgren, *Religions of the Ancient Near East*,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3), 67, 103쪽; N. K. Gottwald, *All the Kingdoms of the Earth*, (New York: Harper & Row), 181쪽.

33) 링그렌, 윗글, 102쪽.

유다의 사회적 부조리에 대하여 야훼가 전쟁 형태의 심판을 행사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전자의 정점에서 심판의 불가피성을 말하고 있는 한편, 시리아-에브라임 전쟁에 대한 대처 문제에서 파생된 앗시리아와의 정치적 동맹 문제를 다루고 있는 후자의 시발점에서 동맹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발하면서, 안전과 회복은 이방마저 통치하시는 야훼의 주도에 의하여 이룩될 것임을 말하려 하였다. 그러나 사 6장의 이러한 역할은 사 6장 자체의 통일성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문제가 되는 12-13절을 문학적 구조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13절의 본문비평을 통해 그 진정성을 논증하였다. 뿐만 아니라, 13절이 포함될 때, 이사야 개인의 죄에 대한 심판과 정화를 통한 회복이 유다 백성 전체의 죄에 대한 심판과 회복의 예표적 기능을 잘 설명해 준다는 사실도 언급하였다. 끝으로, 심판이 불가피한 이유는 사회 지도층의 탐욕, 불의 및 정책적 모순으로 기인한다는 사실에 대한 진술과 함께, 관련 본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에 근거하여 심판이 전쟁의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며, 그 전쟁이 암시하는 역사적 정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다. 그리고 전쟁을 통한 심판이 유다의 사멸이 아닌 정화임을 밝힘으로써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한편, 심판의 도구로서의 이방 또한 야훼의 심판 대상이 됨으로써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를 드러냄을 언급하였다.

5. 참고문헌

- 김 재구,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6장의 신학적인 기능,” 「구약논단」 제25집(2007), 70-88쪽.
 김 회권, “이사야의 하나님 결단의 신학: 이사야 6장에 대한 주석적 연구,” 「구약논단」 제25집(2007), 10-29쪽.
 체이니, 마빈 L., 「동경사회 시각으로 바라본 성서 이스라엘: 구약성서의 종교와 사회의 역사·문학 해석」 (우택주 외 6명 옮김), (서울: 한울출판사, 2007).
 Ahlström, G. W., “Isaiah 6:13,” *Journal of Semitic Studies* 19 (1974), 169-172쪽.
 Blenkinsopp, J., *Isaiah 1-39: A New Translation with Introduction and Commentary* (AB), (New York: Doubleday, 2000).
 Budde, K., “Über die Schranken, die Jesajas prophetischer Botschaft Zu setzen sind,” *ZAW* 41 (1923), 154-203쪽.
 Childs, B. S., *Isaiah* (OT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1).
 Clements, R. E., *Isaiah 1-39* (NCBC), (Grand Rapids: W. B. Eerdmans, 1980).
 Engnell, I., *The Call of Isaiah*, (Uppsala/Leipzig: Lundequistska, 1949).
 Evans, C. A., *To See and Not Perceive: Isaiah 6:9-10 in Early Jewish and Christian Interpretation*,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89).

- Gammie, J. G., *Holiness in Israel*,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89).
- Gitay, Y., *Isaiah and His Audience: The Structure and Meaning of Isaiah 1-12*, (Assen, Netherland: Van Gorcum, 1991).
- Gottwald, N. K., *All the Kingdoms of the Earth*, (New York: Harper & Row, 1964).
- Hasel, G. F., *The Remnant: The History and Theology of the Remnant Idea from Genesis to Isaiah*, (Berrien Springs: Andrews University Press, 1972).
- Heschel, A. J., *The Prophets: An Introduction*, (New York: Harper & Row, 1969).
- Hong, Seong-Hyuk, *The Metaphor of Illness and Healing in Hosea and Its Significance in the Socio-Economic Context of Eighth-Century Israel and Judah*, (New York: Peter Lang, 2006).
- Knierim, R., "The Vocation of Isaiah," *VT* 18 (1968), 47-68쪽.
- Liebreich, L. J., "The Position of Chapter Six in the Book of Isaiah," *Hebrew Union College Annual* 25 (1994), 37-40쪽.
- Miscall, P. D., *Isaiah*, (Sheffield: JSOT Press, 1993).
- Ringgren, H., *Religions of the Ancient Near East*,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73).
- Sweeney, M. A., *Isaiah 1-39 with an Introduction to Prophetic Literature* (FOTL XVI), (Grand Rapids: W. B. Eerdmans, 1996).
- Watts, J. D., *Isaiah 1-33* (WBC 24), Revised, (Nashville: Thomas Nelson, 2005).
- Wildberger, H., *Isaiah 1-12: A Commentary*, Trans. T. H. Trapp,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1).
- Willis, J. T., "The Genre of Isaiah 5:1-7," *Journal of Biblical Literature* 96 (1977), 337-62쪽.
- Yee, G. a., "A Form-Critical Study of Isaiah 5:1-7 as a Song and a Juridical Parable," *Catholic Biblical Quarterly* 43 (1981), 30-40쪽.

검색어

우주적 통치 • 심판 • 정화 • 거룩한 씨
남은 자 • 회복

투고일: 2004년 4월 25일
심사일: 2009년 2월 17일
게재확정일: 2009년 2월 25일

The Universal Rule of God in Judgment and Restoration in Isaiah 6

Seong-Hyuk Hong, Ph. D.
Professor, Department of Theology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The Relationship of judgment and restoration in Isaiah 6 has been a recurring problem among scholars. Not a few proponents took the viewpoint that Isaiah's message was primarily one of doom, eliminating any oracle of Isaiah that sounds like restoration for the future. Especially, they regard the verse 13 of restoration as a later addition to the original commission account, made most probably during the period of the exile.

Against this view, this study will, ultimately in a dialogue between the literary and historical approaches, first attempt to display that coherence within Isaiah 6 is firmly established by analyzing its literary context and unifying structure as well as its literary features such as thematic continuity, similar vocabulary and imagery. From the standpoint of its context, Isaiah 6 is at the center of chapters 1-12 which deal with the judgment and restoration of both Israel and Judah. It functions as a suitable conclusion to chapters 2-5 which are focused on the socio-religious corruption, while it does as an equally suitable introduction to chaps. 7-12 whose common features revolve around political issues. Its transitional position indicates that while it is placed

in the climax of judgment, it presages Yahweh's sovereign intervention which will reveal in the relationship of Judah with foreign nations. With respect to the structure of Isaiah 6 itself, it divides into 3 sub-sections. The first sub-section (v. 1a^d) sets the stage for the entire commission report by describing when Isaiah's vision took place and Yahweh began to take an initiative in the future events. The second sub-section (vv. 1a^β-7) refers to Isaiah's vision of Yahweh's presence in the temple which includes the doxology uttered by the seraphim and Isaiah's purification made by a seraph under the control of Yahweh. The third sub-section (vv. 8-13) is the audition report of Yahweh's purificatory judgment and restoration of Judah characterized by a question-and-answer pattern. This sub-section starts with a report of Yahweh's question and ends with a report of His answer. All the features of the structure suggests that Yahweh will exert a sovereign influence on the judgement and restoration of Judah.

On the basis of the literary analysis and more illumination of historical background implicit in the passage, this study is further aimed at showing that the passage of doom and restoration is from the eighth-century prophet and its primary intention is to stress the universal rule of Yahweh with the pattern of unavoidable purificatory judgment and subsequent restoration symbolized by the 'holy seed.' The present study will finally suggest that the prophet Isaiah intended to highlight the importance of trust in Yahweh as the universal ruler, implicitly warning Ahaz and his followers not to rely on foreign alliances to preserve their vested interests.

Keywords

universal rule • judgment • purification • holy seed
remnant • restoration

